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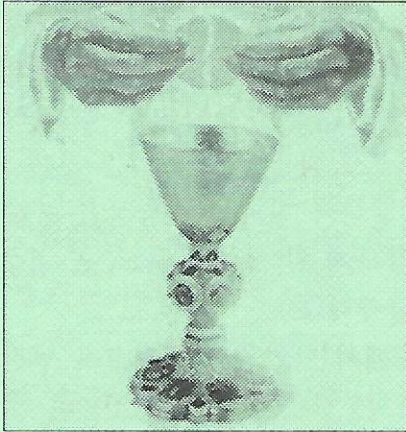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0주일

제35권 38호(나해) 2015년 8월16일

[묵상]



어떤 사람을 만나, 친해지기 위해 쉽게 하는 말이 있다.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음식을 나누는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성체성사를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
 라는 일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는 양방향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충분히 열어 드리고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씩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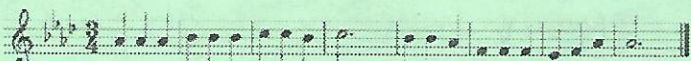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특전 미사	(연)
	(생)이성희 마리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김상진 토마스, 이윤수 요셉, 이태숙 카타리나, 현시영 요셉, 전시웅 요한, 이종수 마틴,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영식 & 김영자, 송순섭 아가다, John Green, 김기준 안젤라, 류동환 야고보, 이윤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생)이재준 요한, 민원희 안나, 김정희 마리아 & 박정희 마리아, 남인구야고보 & 김광자 엘리사벳, 민석준 토마스 & 민미애 & 민영준 마르코, 김지원 임마쿨라라 & 김지민 마리아, 노영자 마리아, 서성용 베드로, 김형준 요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 (Proverbs)9, 1~6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5, 15~2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복음 요한(John)6, 51~58

영성제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가톨릭이란?

3. 천주교의 새로운 가르침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 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이념적 근본을 유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그 실천은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바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에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학과 학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적과 함께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곧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나무 백일홍

제 생을 미리 알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백일 동안 붉은 꽃이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지.

질 날을 꿈으며 지레 지쳐 시들어버릴 만도 하겠건만
꽃은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이 무더위에 이토록 홀로 선연하여라.

백일 동안만 필 수 있으니 함부로 필 수도 없었겠지.

제 남은 날을 알고 살아가는 건 이런 것이었구나.

- 이영 아네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 찬양합니다	231	234
봉헌	그 사랑 야훼께	264	255
성체	423	287	291
파견	기뻐하며 왕께	245	245

미사 참여 이유

교회법에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제1247조)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사 참여의 의미를 너무나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미사 참여의 의무를 신자들에게 지우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 56)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법에서 의무라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의미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험한 인생길에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 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시편 23, 4 참조)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이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체성사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 몸을 받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당신을 따라 당신의 몸을 받아먹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성체성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성체를 모시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배우고 또한 그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김두완 아우구스티노 신부 / 부산평화방송 사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송인선 안젤라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제 단체장 및 사목위원 특강
새 회계 년도를 맞이하여 본당의 모든 단체장, 구역장, 반장, 사목위원 및 차장, 레지오 단장, 꾸리아 간부 들의 봉사직에 대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8월 23일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성당
● 강사 :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님
특강 후 사목위원들의 Workshop이 있습니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 ◆8월 요셉회 모임
친교 점심 나누기가 없는 관계로 요셉 회에서 따로 점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6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성당
- ◆백삼위 한국학교 SAT II 준비반 특강
● 일시 : 오늘주일 (16일) 오전 10:30~12:30
● 2015~2016 년도 한국학교 등록자에 한함

◆ 성령쇄신대회 CD 판매합니다

-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의 CD구입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 또는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에게 문의하십시오.

* 가격 \$20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기도묵상]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만족시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맛들이는 데 있습니다.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반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김기정	김상규	김상근	김선영	김성택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원규	김원호	김종렬	김충섭
	김학겸	남성철	모은기	박인식	반비오	반정이
	배태임	성낙호	신경훈	안종연	안태갑	엄세중
	오상준	오수인	원건희	윤선희	윤희동	이근태
	이민상	이영희	이원형	이일길	이재용	이재정
	정규숙	정병훈	정정현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차인수	최미열	최의수	최진수	홍인표	익명
	합계:\$5,990					
	주일미사 헌금 : \$2,766					

성전헌금	김기정	김양금	김옥보	김원호	김충섭	남성철
	모은기	박인식	반비오	성낙호	신경훈	안종연
	안태갑	엄세중	오수인	원건희	윤선희	윤희동
	이민상	이영희	이일길	이재용	이재정	정규숙
	정정현	정훈모	주대중	차인수	최미열	최진수
	익명					
	합계 : \$ 4,100					
	성물판매 : \$343.50					

남가주 소식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 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KCBC 미주 가톨릭 방송

8월 30일부터 iTunes podcast를 통해
1세, 1.5세, 그리고 2세의 젊은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KCBC 미주가톨릭방송을 download 해서 들
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내용

- 차동엽 신부님의 주일강론
- 심동실 에밀리아의 아름다운 세상
- 김인실 테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 영어 가톨릭뉴스
- 한국어권 / 영어권 청년 들을 위한 교리 신앙, 문화교류
프로그램

● www.kcbcus.podbean.com

◆제 4기 성 요셉천주교 아버지학교 개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일시: 9월 13일 오후 2시(매 주일, 4주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2040W.Artesia Bl , Torrance, CA 90504
- 참가비 : \$120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김태준 대건 안드레아 (213)249-4480

◆제 15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2015년 9월 13일(일) 오후 5시부터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문의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차 장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정희 율리아 925-699-1253 8/7(금) 오후 6시성당 회의실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페트릭871-0787 8/8(토)오후6시30분 성당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8/14(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인식 토마스 490-9662 8/22(토) 저녁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8/8(토) 오후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멧타 8/10(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625-3312 8/21(금) 7시30분 소강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8/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안젤라/임젠펠 938-8089 8/10((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2(일)오후1시30분 De Portola Park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전용&세실리아 310-531-0123 8/14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전 안드레아 213-514-2365 8/14(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1(화)오전10시30분Hesse Park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2015년 성모 승천 대 축일 메시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로마 2,10)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승천 대 축일을 축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성모 승천 대 축일을 경축하면서 “성모 마리아는 당신 모성애로써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여정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보시어 행복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교회헌장」 62항 참조)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성모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로 존경해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깊은 신앙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 깊이 새겨서 실천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위대한 신앙고백으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깊이 동참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일생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이었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응답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모 승천 대 축일에 해방된 우리나라가 광복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 반목하면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서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 증오와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은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는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굳건히 믿었던 성모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루카 1,37 참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단 시대의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겨레는 분열과 미움을 버리고 남북을 넘어서 아시아 안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분단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과 지원을 계속할 때, 한반도에 평화와 일치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남북 분단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정착과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 미래의 번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리와 이익보다 공동선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용기, 실천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로마 2,10 참조)

성모 승천 대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과 일치, 화해와 통일을 이루도록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겨레가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히브 7,19)라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모 승천 대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 신앙인들은 남북은 물론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모든 것으로부터 화해와 일치를 이루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주시고,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어 한반도에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전구해주소서.아멘.”

2015년 8월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염수정

의심에서 신앙으로 간 토마스 사도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사도는 평소에도 사사건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심과 질문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대중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하려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두 번씩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나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스승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11.1-16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나중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토마스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요한 14,1-14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날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20,19-29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토마스의 오랜 의심은 드디어 강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 질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

“네 ()을 여기 대 보고 내()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 저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않고도 믿는 사람은 ()하다.” (요한 20,27-29)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	월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목	CLOSED 2:00~7:00(오후)
목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애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 H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술도라지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